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15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 광주일고-청원고 경기. 4회초 중전안타로 진루한 광주일고 정승인(오른쪽)이 강민국 타석 때 상대 투수가 견제하자 황급하게 1루로 돌아가 세이프되고 있다. 청원고가 1-0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마산 '방망이'냐… 청원 '마운드'냐…

제15회 무등기 고교야구

대회 7일째

오늘 대망의 결승전…'창과 방패' 대결

서울의 강호 청원고(옛 동대문상고)와 마산고가 제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패권을 놓고 맞붙게 됐다.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진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준결승전에서 청원고가 강력한 우승후보 광주일고에 1-0으로 완봉승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했다. 마산고도 난적 휘문고와 대결에서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해 4-1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은 16일 오후 6시부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벌어지며 X-ports가 생중계 한다.

광주일고 0-1 청원고

경기 초반 광주일고 선발 양영웅과 청원고 조근종의 마운드 명승부가 펼쳐졌다. 두 선수는 5회까지 각각 3개, 2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숨막히는 투수전을 펼쳤다.

6회 일고 선발 양영웅이 2사 후 장민제에게 마운드를 넘겨줬지만 양팀의 팽팽한 투수전 양상은 계속됐다. 치열한 투수전이 전개되던 7회초 일고가 먼저 득점 기회를 맞았다. 김태형과 강백산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1사 1·3루. 그러나 최형석의 스퀴즈 번트때 3루주자 김태형이 홈에서 아웃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큰 위기를 넘긴 청원은 8회 1사에서 오승택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기회를 잡았다. 일고 투수 장민제는 폭투와 볼넷을 내주면서 흔들렸고, 1사 1·2루에서 3번타자 김정수가 우중간을 넘기는 2루타를 때리면서 결승점을 뽑았다.

일고는 9회초 1사에서 손명기의 2루타로 승부를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완봉패의 수모를 겪으며 결승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킨 청원고 선발 조근종은 6피안타 4탈삼진으로 완봉승을 거두며 무등기 '깜짝스타'로 떠올랐다.

마산고 4-1 휘문고

준결승 첫 경기 마산고와 휘문고의 대결에서는 실책 3개가 승부를 갈랐다.

양팀의 투수전이 전개되던 4회 마산고가 팽팽하던 0의 균형을 깼다. 앞선 3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며 5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휘문고 투수 허준혁이 선두타자 문선엽에게 안타를 맞은 후 흔들렸다. 1사 2루에서 3번 박상혁의 볼을 처리하던 허준혁은 1루에 악송구를 했고, 그 틈을 타 마산고 3루주자가 홈을 밟았다. 마산고의 강원형은 흔들리는 허준혁을 상대로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때려내 스코어를 2-0으로 벌렸고 폭투 때 3루주자까지 홈을 파고 들어 점수는 3-0이 됐다.

반격에 나선 휘문고는 5회 2루수 키를 살짝 넘기는 안타로 진루한 조승수가 폭투로 2루까지 진루한 뒤 전수환의 안타와 김동현의 희생번트로 1점을 쫓아갔다. 휘문고는 6회에도 1사 1·2루의 기회를 맞았지만 추가 점수를 뽑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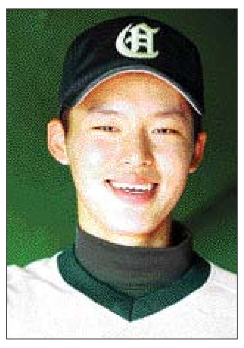
마산고는 7회초 볼넷으로 출루한 강원형이 2수루의 악송구가 나온 사이 3루까지 진루했고, 스퀴즈 번트가 성공하면서 4-1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스타

청원고 조근종 투수

"과감한 직구 승부 주효"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공 한 개 한 개 최선을 다해 던졌습니다. 막강한 팀을 꺾게 돼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청원고 에이스 조근종(3년)이 광주일고와의 준결승전에서 완봉승을 거두며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조근종은 이날 강력한 우승후보 광주일고를 맞아 9이닝동안 6피안타 4탈삼진으로 완벽투구를 선보이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초반에 컨트롤이 잡히지 않아 고전했는데 9회까지 다 던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컨트롤이 잡히면서 과감하게 직구로 승부를 건 게 주효했습니다"

조근종은 "상대가 상대인 만큼 마지막 타자를 잡을 때까지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마운드에서 큰 부담감은 없었다"며 미소 지었다.

"제 장점이 게임 운영능력입니다. 마운드에서 투수가 흔들리면 팀도 같이 흔들립니다. 난적을 꺾은 만큼 상승세를 이어 반드시 무등기 우승을 이끌고 돌아가겠습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결승 오른 두 감독 출사표

■ 마산고 이효근 감독

"기동성 앞세운 공격야구로 승부"

"빠른 주자들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야구를 구사해 제 15회 무등기 우승을 노리겠습니다."

강호 휘문고를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이효근 마산고 감독은 "집중력과 기동성을 살려 청원의 마운드를 흔들어 승리하겠다"고 결승전 출사표를 던졌다.

"휘문과 준결승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앞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이 감독은 "우리 팀은 빠른 선수들이 많고 타격이 좋은 게 장점이다. 빠른 주자들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야구로 우승기를 안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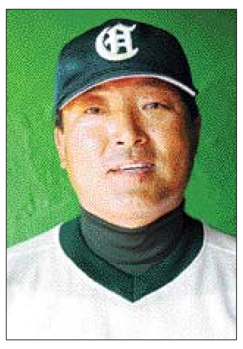
이 감독은 청원고는 투수진과 수비에서 모두 안정된 팀이지만 박상혁·최재원·강원형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의 타력은 마산고가 앞선다는 것.

여기에다 지난해 제 88회 광주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팀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공격적인 타선과 함께 박상혁·정성빈 등으로 이어지는 마운드 전력도 지난해보다 한층 더 안정된 만큼 좋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청원고 최인수 감독

"최강 마운드로 꼭 정상 오르겠다"



"우승 후보 광주일고를 꺾고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내친김에 마산고를 누르고 꼭 우승 하겠습니다."

우승후보 광주제일고를 누르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오른 최인수 청원고 감독은 16일 마산고와의 결승전 승리를 자신했다.

옛 광주상고(현 동성고) 29회 졸업생으로 동국대-포항제철에서 현역생활을 했고, 모교에서 지난 1998년까지 10년동안 코치·감독을 역임했던 최 감독은 한서고를 거쳐 지난해 말 청원고 감독을 맡아 6개월 만에 무등기 우승을 넘보게 됐다.

최 감독은 "광주일고가 사이드 암 투수에 약한 것을 감안, 조근종을 마운드에 올린 것이 오늘 승리의 요인이었다"며 "마산고와 결승에서는 2년생 우완 박상옥과 좌완 신규범이 건재한데다 위기때는 조근종을 투입하는 등 마운드의 우위를 살린다면 승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또 "4강을 목표로 했는데 준결승에서 광주일고를 제압, 선수들 사기가 충천해 있는 것이 마산고와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늘 오후 6시 결승전(무등경기장 야구장)… 입장료 무료, X-ports 생중계

신지애 '무서운 뒷심'

BC카드클래식 6타차 뒤집고 시즌 4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반기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던졌다.

15일 끝난 KLPGA 투어 BC카드클래식 우승으로 시즌 4승을 올린 신지애는 3억 9천만원으로 상금 랭킹 1위를 질주하며 1억 4천만원인 2위 유소연(18·하이마트)과 격차도 크게 벌려 놓았다.

시즌 상반기에 3개 대회가 남아있지만 신지애는 US여자오픈을 위해 과감하게 국내 대회를 포기했다.

신지애는 작년 이 대회에서 6위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고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 출국 일자를 대회 개막 1주 전인 20일로 잡았다. 또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도 우승한 신지애는 시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대회에도 자주 출전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 그의 모습을 국내에서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지애는 15일 제주 테디밸리 골프장(파72·6천353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에 고전하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조미현(28·ADT캡스), 김민선(21·김영주골프), 김현지(20·LIG)와 벌인 연장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전반에 3타를 줄였지만 후반에 3타를 잃어 버린 신지애는 3라운드 합계 5언더파 211타를 쳐 6타를 까먹으며 무너진 조미현, 각각 3타와 1타를 줄인 김민선, 김현지와 함께 연장전에 들어 갔다. 18번홀(파4)에서 벌어진 첫번째 연장전에서는 조민선과 김현지가 탈락했고 신지애와 김민선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며 세번째 연장까지 갔다.

신지애는 두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김민선은 그린을 넘겨 가장자리 바로 뒤쪽에 떨어졌다. 김민선의 어프로치샷은 핀을 지나 6m까지 굴러갔고 신지애는 핀까지 15m를 남기고 2퍼트로 마무리 하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우즈 환상의 이글쇼

PGA US오픈 3R 선두

두달 만에 필드에 복귀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생애 14번째 메이저대회 챔피언을 눈앞에 뒀다.

우즈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파71·7천643야드)에서 열린 제108회 US오픈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2개를 뽑아내고 버디 2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타를 줄인 끝에 중간합계 3언더파 210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지금까지 메이저대회에서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았을 때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아 '메이저대회 역전불허'의 명성을 쌓아온 우즈에게 14번째 메이저 우승에 9부 능선을 넘은 셈. 1번홀(파4)을 더블보기로 홀아웃한 데 이어 4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순위가 크게 밀린 우즈는 7번홀(파4)에서 이날 첫 버디를 잡아냈지만 12번홀(파4)에서 또 보기를 적어내 선두 경쟁에 탈락하는 듯 했다. 최고령 우승에 도전하는 로코 메디에이트(미국)가 10번홀까지 2타를 줄여 5타 차로 앞서나갔고 웨스트우드도 4타차로 달아''났다.

13번홀(파5)에서 드라이버로 때린 우즈의 티샷은 페어웨이를 한참 벗어나 바짝 마른 풀이 듬성듬성 자란 공터로 날아갔다. 208야드를 남기고 4번 아이언을 잡은 우즈는 핀을 넘겨 그린 뒤쪽 에지에 볼을 올렸고 20m 짜리 이글 퍼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다란 원을 그리며 구르더니 거짓말처럼 컵 속으로 사라졌다.

17번홀(파4)에서 티샷을 러프로 보낸 우즈는 두번째샷이 그린에 못 미쳤으나 다소 강하게 친 듯 했던 칩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들어갔다. 또 한번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인 우즈는 18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을 그린에 올린 뒤 9m 거리에서 이글 퍼트를 집어넣어 그린을 둘러싸고 있던 관중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호심배 아마추어골프대회 남자부 입상자들이 시상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2위 김우현, 우승 김기환, 대회장인 김혁종 광주대 총장, 3위 김비오. 〈광주대 제공〉

김기환·박선영 남녀부 우승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으로 치러진 광주대 주최 제6회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김기환(인천 제물포고 2년)과 박선영(창원 사파고 2년)이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의 김기환은 대회 최종일인 지난 13일 화순 900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결선 라운드에서 현 골프국가대표인 김우현(고양 백석고 2년)과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골프국가대표 상비군인 여자부의 박선영은 3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4대 메이저급 대회로, 현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 한국아마추어대회 상위 40위 이내의 골프 유망주 등 남녀선수 230여명이 출전, 예선을 통과한 남녀선수 96명이 12~13일 결선라운드를 치렀다. /최재호기자 lion@